

“열여덟 어른, 홀로 살아가기엔 버거운 세상”

전남도, 자립준비청년 첫 실태조사

열여덟살에 홀로 세상에 던져진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(보통종료아동) 10명 중 3명은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전남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3명은 안정된 주거가 없어 친구 집이나 고시원, PC방·만화방, 여관·모텔 등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절실하지만 10명 중 8명은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.

전남도가 최근 내놓은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'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' 결과 <관련기사 광주일보 2022년 12월 6일 1면>이다. 이 결과는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이다. 전남도는 전남 아동복지시설(보육원 등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)을 퇴소(5년 이내)한 1000여명에 달하는 자립준비청년

10명 중 3명, 1천만원 이상 빚...“경제문제 극단적 선택 생각·시도 경험”

친구 집·고시원·PC방 등 옮겨 다니...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자립정착금

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, 응답한 309명에 대해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.

실태조사결과, 응답자의 15.9%의 자립준비청년들은 “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”고 답했고, 이들 중 18.4%는 “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”고 답했다.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(31.9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

10명 중 4명 꼴인 38.4%가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임대주택·자립지원시설에 살고 있지만 응답자의 8.9%는 기숙사, 고시원·모텔, 친구집 등에 머무르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. 또 31.4%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친구 집, 고시원, PC방·만화방, 여관·모텔 등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런 상황임에도, 정부가 이들에 대해 제공하는 매입임대·전세임대 등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. 응답자의 84.7%(205명)는 ‘서비스 정보를 몰라서’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. 정책이 필요한 실소유자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.

보육원 등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지원금(500만원)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정을 감안한 지원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.

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여전했다.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·대학교를 휴학·중퇴한 자립 청년들의 43.6%는 ‘경제사정’을 중도 포기 사유로 꼽았다.

보육시설 퇴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, 33%의 응답자가 1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고 생활비를 마련(49.1%)하기 위해 빚을 졌다고 응답했다.

자신이 생활했던 양육시설 또는 위탁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.3%에 달한 반면,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(17.8%), 자립생활의 어려움 상담(11.7%)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아 자립하는데 의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.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친구·선후배가 응답자의 63.1%로 가장 높았지만,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8.1%에 달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사적·공적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(71.2%)도 많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요청되고 있다.

가장 도움이 되는 자립지원서비스로는 자립정착금(1위)→자립수당(2위)→디딤씨앗통장(3위)→임대주택(4위)→등록·장학금(5위)→문화지원 등의 순이었다.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지원, 쓸 수 있

는 곳이 한정된 문화지원,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적 혜택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로 꼽혔다.

이 때문인지 이들은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(78%)을 1순위로 지목했고 주거지원(51.6%), 건강지원(26.2%) 등을 선택했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실태조사인 만큼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의 16세 이상 보호 아동 수는 2021년 기준 1064명에 달해, 전국에서 경기(1555명) 다음으로 많고 전남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222명이 발생했다. 전남자립지원전담 기관은 또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돼 시설을 나와 자립한 청년 중 행정 시스템과 관계가 끊긴 136명의 연락체계를 복원하고 있다.

/김지우 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“굿바이! 루오전”

경제난 속 관람객에 위로와 성찰 전하고 29일 막 내려

회화·판화 등 명화 200여 점 전시
조정래·RM 등 전국서 발길 이어져

‘루오가 전하는 위로와 성찰.’

지난 10월 5일 개막한 ‘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’전이 오는 29일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.

전남도립미술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블록버스트 명화 전시로 미술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. 특히 순회전이 아닌 전남도립미술관 단독 기획전으로, ‘태백산맥’의 소설가 조정래, BTS 리더 RM 등 유명인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.

프랑스 퐁피두센터, 조르주 루오 재단과의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경향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세계적인 작가 조르주 루오(1871~1958)의 회화, 드로잉, 스테인드글라스, 판화, 도자기 타피스트리 등 그의 전 생애를 망라한 총 2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.

전시작들은 원색의 화려한 색감과 두터운 마티에르, 굵은 선면 등 루오 작품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

있는 명작들이다.

특히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던 58점의 판화 연작 ‘미제레레(Miserere)’를 비롯해 ‘루드밀라’, ‘베로니카’ 등의 대표 작품과 그가 평생을 두고 작업했던 광대와 뺨에로를 소재로 한 ‘무지개 곡마단의 소녀 마술사’, ‘어린 뺨에로’, ‘두 형제’, 그의 작품 경향의 모태가 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‘작은숲 1’ 등은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이다.

더불어 이번 루오전과 함께 열리는 연계 전시 ‘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:시선 공명’에서는 이종섭·구본웅·한묵·이봉상 등 23명 작가의 작품 40여 점도 전시중이다.

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는 “퐁피두센터 등에서 직접 대어한, 세계적인 작가 루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”며 “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았던 그의 작품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도슨트 운영 시간 평일(오전 11시, 오후 1시·2시 30분·4시), 주말(오전 10시30분, 낮 12시, 오후 2시30분·4시·5시). 티켓가격 성인(19세 이상) 1만 5000원, 어린이·중고등학생(7~18세) 9000원. 롯데카드·전남도민 20% 할인.

/김미은 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지난해 10월 5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막한 ‘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’전이 오는 29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.

/나명주 기자 mjna@kwangju.co.kr



‘난방비 폭탄’ 들끓는 민심에 화들짝 ▶3면

흑한에 수도관 동파 수리 현장 가 보니... ▶6면

북스 - ‘도시의 만화경’ 역사와 과학 ▶14·15면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 Truth [진리] 로 충만한
기독교명문대학
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!!
입학문의 학부 062)605-1114 대학원 605-1115

IOPE
RETINOL EXPERT
RETINOL 0.1%
NEW

슈퍼레티놀
단 2주만에 주름잡다

|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.1% |

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,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?
이제,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
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

레티놀은 아이오페

IOPE

2weeks
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당
잠자 주름 80% 단 2주만에 개선
IOPE LAB